

#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白裕相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Fore constitutions according to the aspects of Nature, Human, Mind and Mission

Baik you-sang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n convertible relation of Seong(性) and Jeong(情) on delight(喜), anger(怒), sadness(哀) and pleasure(樂), comparison are made between Taeyang-in(太陽人) and Soyang-in(少陽人) samely, Taeum-in(太陰人) and Soum-in(少陰人). This point is very important basis to classify Yang-in(陽人) and Eum-in(陰人), the former has sadness and anger but the latter has delight and pleasure. Because of that conversion, Taeyang-in and Soyang-in show similar emotion actually, samely in Taeum-in and Soum-in. But it is not easy to see the conversion between Yang-in and Eum-in. When the capacity and incapacity of action in real life appers, the comparison between Taeyang-in and Soum-in Soyang-in and Taeum-in are made. For example Taeyang-in is manly and Soum-in is womanish, Soyang-in is highly competitive and Taeum-in is like to defends itself. Each constitutions repair each other's defects so to feel intimacy each other. When native weakness is overcome, fore constitutions get the excellent Calculation, Career, Self-inspection, Measurement. Also in the course of efforts to approach opposite constitutions in real actions, each constitutions show the great Insight, Dignity, Talent, Expedient.

key words : Calculation, Career, Insight, Dignity, Talent, Expedient.

### 1. 서론

四象醫學에서 말하는 太陽人, 少陽人, 太陰

人, 少陰人의 네가지 체질은 서로간에 유사성과 대립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東醫壽世保元』에서 규정한 天, 人, 性, 命의 네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체질간 유

사성과 대립성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각 체질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체질을 정확히 감별하는데 일부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天人性命은 사람의 性情에 근본하여 바라본 것이므로 그밖에 體形의 차이나 각 病症의 차이를 종합해 보아야 정확한 체질감별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론에서는 性情의 차이, 臟大小의 차이, 人事의 能不能 차이 등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각 체질을 비교해 보았다.

## II. 본 론

### 1. 『東醫壽世保元』 中 天人性命의 의미

#### 1) 天機와 人事

『東醫壽世保元』에서 말한 天人性命 중에서 天은 天機를 人은 人事를 말한다. 天機는 宇宙 天地를 엮어매고 있는 기틀을 말하는데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의 네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이 중 天時와 地方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늘의 운행 속에는 보이지 않는 無形의 이치 즉 理가 들어있고 地方은 모든 有形의 萬物을 만들어내는 物的 토대가 된다. 世會와 人倫은 天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 세상을 말하는데 世會는 맹목적인 人情에 얽매이지 않고 이치로 돌아가는 사회이고 人倫은 사람 사이에 인연으로 얽혀진 관계들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이다. 같은 인간 세상 중에서도 世會는 理에 가까운 면을 가지고 있고 人倫은 氣에 가까운 면을 가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天時와 地方은 모두 非人間 세계이면서

그 중 天時는 理에 가깝고 地方은 氣에 가까우며, 世會와 人倫은 모두 人間 세계이면서 그 중 世會는 理에 가깝고 人倫은 氣에 가깝다. 天機는 ‘나’라고 하는 인간 주체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본 것인 반면에 人事는 주체인 사람이 天機 속에 개입하여 바라본, 인간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말한다.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人事는 事務, 交遇, 黨與, 居處로 나누어진 다. 事務는 나와 남이 無形의 일로써 이어진 것을 말하며 居處는 내가 항상 돌아가 安定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한다. 交遇와 黨與는 사람끼리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인데 交遇는 親疎에 상관없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만나 일을 하려는 것이고 黨與는 친한 사람과 서로 관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주고 받으려는 것이다. 事務와 居處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고 事物과 각각 맺고 있는 관계이다.

사람이 天機를 느끼는 것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 능력에 의해서인데<sup>1)</sup> 耳目鼻口는 우리 몸 중에서 외부로부터 기운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생긴 것이다. 소리와 빛은 모두 형체가 없는데 이중에서도 소리가 더욱 無形에 가깝다. 귀는 天時에 담겨져 있는 理를 듣는데, 理를 소리에 비유한 것은 無形 중의 無形이기 때문이다. 世會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이치에 의해 돌아가므로 빛에 비유할 수 있다. 냄새와 맛은 모두 물질적 토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중 냄새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좀더 無形에 가깝고 맛은 직접 物을 먹어서 느끼는 것이므로 가장 物的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天機는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 세계인데<sup>2)</sup> 耳目鼻口는 이러한 세계를 받

1)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이라 하였다.

2) “天時, 大同也. 世會, 大同也. 人倫, 大同也. 地

아들이기 위해 외향적으로 열려있는 개방적 체계이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好善이라 한다. 반면에 주체가 개입된 人事<sup>3)</sup>는 肺脾肝腎의 四臟이 담당하는데<sup>4)</sup>, 肺脾肝腎은 주체인 자신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하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거부해나가야 하니 이것을 惡惡이라 한다. 好善과 惡惡은 모두 사람의 생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작용들이다.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善聲 順耳也 善色 順目也 善臭 順鼻也 善味 順口也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惡聲 逆肺也 惡色 逆脾也 惡臭 逆肝也 惡味 逆腎也

또한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哀怒喜樂의 감정을 性과 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性이 바로 耳目鼻口의 聽視嗅味에 해당하고 情은 자신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그러므로 역시 性은 好善의 성질을, 情은 惡惡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哀怒喜樂의 性과 情 관계는 이후에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 2) 性(行其知)과 命(行其行)

方, 大同也.”라 하여 天機를 개인적 주관의 세계가 아닌 모든 事物이 통해있는 大同의 세계라고 하였다.

- 3) “事務, 各立也. 交遇, 各立也. 黨與, 各立也. 居處, 各立也.”라 하여 大同과는 달리 각각의 개인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 4)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라 하였다. 이 네가지 人事를 또한 각각 事, 心, 身, 物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일을 막힘없이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은 事이고, 남과 회합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마음이 맞아야 하며,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를 세워 함께 움직이는 것은 身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居處를 안정되게 확보하는 데는 物的 토대가 필요하다.

天機와 人事가 한 사람이 외부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여러 측면을 전체적으로 바라본 것이 라면 性과 命은 현실 속에서 한번씩 行을 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마음과 몸의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領有籌策 臆有經綸 膺有行檢 腹有度量  
籌策 不可驕也 經綸 不可矜也 行檢 不可伐也 度量 不可夸也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識見 必無奪也 威儀 必無侈也 材幹 必無懶也 方略 必無竊也  
領臆膺腹 行其知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籌策 博通也 經綸 博通也 行檢 博通也 度量 博通也  
識見 獨行也 威儀 獨行也 材幹 獨行也 方略 獨行也  
博通者 性也 獨行者 命也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은 領臆膺腹에서 知를 한번 行할 때 나오는 마음의 작용이며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은 頭肩腰臀에서 남을 위하여 몸을 行할 때 나오는 작용이다. 이것을 각각 行其知, 行其行이라 표현하였다. 마음의 작용은 博通이라 하여 밖으로 두루 통해야 하고 몸의 행함은 獨行이라 하여 남이 없을 때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博通과 獨行을 각각 마음의 性과 몸의 命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의 性은 哀怒喜樂을 性情으로 구분할 때의 性과는 달리 행동을 할 때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 것이다.

## 2. 哀怒喜樂 性情에 따른 체질간 비교(太陽-少陽, 太陰-少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각 체질별 哀怒喜樂

性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太陽人과 少陽人은 哀怒의 性情을 가지고 있으며 太陰人과 少陰人은 喜樂의 性情을 가지고 있다. 원래 哀怒喜樂은 그 순서대로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에 배속되어 있는데<sup>5)</sup>, 性의 경우에는 체질별로 臟大 한 부분에 배속된 哀怒喜樂이 그대로 드러나며 情의 경우에는 太陽人과 少陽人, 太陰人과 少陰人이 서로 짝을 이루어 상대방의 臟大에 해당하는 부분의 情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어 太陽人의 경우에는 臟大小에 있어서 肺大肝小이므로 上焦가 발달되어 哀性이 드러나는 동시에, 少陽人의 性에 해당하는 怒가 情으로 드러난다. 少陽人은 이와 반대이다. 그러므로 性情관계로 볼 때에는 太陽人과 少陽人이 대비되는 것이다.

우선 『東醫壽世保元』에서 말한 性情의 의미와 哀怒喜樂의 특성, 그리고 哀怒喜樂의 상호轉化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性情의 개념

일반적으로 유학에서 바라볼 때 性은 마음속

5) 『東醫壽世保元·四端論』: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에 들어있는 理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仁義禮智로 표현된다. 반면에 情은 氣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喜怒哀樂으로 요약 된다<sup>6)</sup>. 그런데 李濟馬는 喜怒哀樂을 다시 性情으로 구분하였다. 喜怒哀樂의 性이란 이미 喜怒哀樂이 情임에도 불구하고 仁義禮智 四端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情이 있다고 본 것이다. 朱子가 말한 대로 情이 性을 좇아 올바르게 발현되어 道의 用으로서 達道하여 和하는 것을 李濟馬는 喜怒哀樂의 性이라 표현한 것이다. 즉 여기서 喜怒哀樂의 性은 私慾의 소산이 아닌 大義를 위한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孟子』에서 말한 대로 文王, 武王이 한 번 怒하여 천하의 백성을 편안케 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7)</sup>.

喜怒哀樂에 다시 性을 붙인 것은 약간의 지나침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本性에 가까운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므로 性字를 붙인 李濟馬선생의 본 뜻을 헤아려본다면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 2) 哀怒喜樂의 陰陽의 특성

『內經』에서는 怒喜思悲恐이 순서대로 肝心脾肺腎 五臟에 배속되어 있어서 怒喜는 陽의 감정, 悲恐은 陰의 감정으로 보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哀怒를 陽의 감정, 喜樂을 陰의 감정으로 보아서 哀와 喜의 경우에서 『內經』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8)</sup>. 다음은 『東醫壽

6) 『中庸集註』: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喜怒哀樂, 情也. 其未發則性也. 無所偏倚故, 謂之中. 發皆中節, 情之正也. 無所乖戾故, 謂之和. 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皆由此出, 道之體也. 達道者, 循性之謂, 天下古今之所共由, 道之用也. 此言性情之德, 以明道不可離之意.)

7) 『孟子·梁惠王下』: “詩云王赫斯怒, 爰整其旅, 以邊徂莒, 以篤周祜, 以對於天下, 此文王之勇也. 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 書曰天降下民, 作之君作之師, 惟曰其助上帝, 寵之四方. 有罪無罪, 惟我在, 天下曷敢有越厥志. 一人衡行於天下, 武王恥之, 此武王之勇也. 而武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

世保元』에서 哀怒喜樂 氣의 흐름을 설명한 부분이다.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

喜와 哀에 대한『內經』과 『東醫壽世保元』의 상반된 내용은 관점의 차이 때문에 표현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喜는 외부로 氣를 발산, 소통하여 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운을 가라앉히게 된다. 『內經』에서 喜則氣縱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sup>9)</sup>. 哀의 경우는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침울하게 되지만 속으로는 편안하지 못한 상태로 격한 감정을 내재하고 있다. 『內經』에서 悲哀動中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sup>10)</sup>. 즉, 氣 흐름의 방향으로만 본다면 喜는 發散하여 陽에 속하고 哀는 수렴하여 陰에 속하지만, 마음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喜는 부드럽게 만들므로 陰에 속하고 哀는 격하게 만들므로 陽에 속하게 된다.

哀怒와 喜樂의 陰陽 성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哀怒는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거부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哀怒는 기운이 위로 치솟게 된다. 반면에 喜樂은 어떤 대상에

대한 친밀한 감정으로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운이 아래로 처지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雖好善之心 偏急而好善則 好善 必不明也  
雖惡惡之心 偏急而惡惡則 惡惡 必不周也  
天下事 宜與好人做也 不與好人做則 喜樂必煩也  
天下事 不宜與不好人做也 與不好人做則 哀怒益煩也

즉 哀怒는 惡惡의 과정에서 나오고 喜樂은 好善의 과정에서 나온다는 설명이다. 哀怒와 喜樂을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 哀와 樂은 내부에 감추어져 있으며 怒와 喜는 외부로 잘 표현된다. 겉으로 보기에 怒喜가 분명하고 세력이 강하게 보이는 반면에 哀樂은 怒喜보다 지속적이며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 3) 哀怒喜樂의 발현 요인

哀怒喜樂이 어떠한 경우에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 哀情 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8) 『內經』에서는 怒喜思悲恐을 肝心脾肺腎 五臟에 배속하여 직접적으로 哀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哀와 悲는 모두 슬픈 감정으로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悲가 肺에 배속되어 陰에 속하므로 哀도 또한 陰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본다.  
9) 『素問·舉痛論』: “岐伯曰...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  
10) 『靈樞·本神』: “因悲哀動中者, 竭絕而失生.”  
『素問·痿論』: “悲哀太甚, 則胞絡絕, 胞絡絕, 則陽氣內動, 發則心下崩數溲血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己也 樂情 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

哀怒喜樂은 순서대로 각각 欺侮助保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였다. 우선 喜는 助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助란 자신과 친분 관계가 가깝지 않은 어떠한 사람이 합당한 이유와 명분하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외부 세계와의 긍정적 소통의 결과로서 기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 세계란 사람 자체일 수도 있고 물질적 도움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나 진리일 수도 있다. 단, 그러한 생소한 외부 세계가 나 자신과 서로 통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論語』에 나오는 說의 감정이 여기에 해당된다<sup>11)</sup>.

樂은 保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保는 이미 서로간에 성립된 親함을 바탕으로 하여 맹목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즉, 나의 영역에 포함되는 어떤 대상이 특별한 이유없이 보호를 해주거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 나오는 감정을 樂으로 보았다. 그 대상이 이미 나에게 익숙해져서 다가올 때 아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주변에 없을 때는 오히려 허전하게 느낄 수도 있다<sup>12)</sup>.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실제로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세세한 명분들이 뭉쳐져서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굳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喜와 樂은 모두 사람들간에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에 대하여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대로 好善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 喜는 좀더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세계와의 소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면에 樂은 비교적 폐쇄적인 자기만의 주관세계 안에서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怒는 侮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侮란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돈, 명예, 지위 등에 의하여 강자와 약자가 갈라지는데 이때에 강자가 약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侮이고, 怒는 여기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역시 공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강약의 편차가 없어지는 완전 평등의 세상은 존재할 수 없으나 서로간에 반목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욕구가 怒의 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哀는 欺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欺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속이거나 또는 게으름을 피우고 편하게 일을 대충 처리하고서 그것을 덮어 감추려는 것이다. 哀는 이렇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역시 怒에 비하여 안으로 잠재되어 있는 감정이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화를 내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순이 감추어진 상태로 진행되거나 또는 그것이 한두개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怒보다는 悲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怒가 悲로 변할 수 있고 반대로 悲가 怒로 변할 수 있으니 悲는 비록 안으로 잠재되어 있는 감정이기는 하나 이 또한 매우 격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怒와 哀는 세상 일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서로 간에 투쟁하는 상황

11) 『論語·學而篇』: “子, 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 (說, 喜意也. 既學而又時時習之則所學者, 熟而中心喜說, 其進, 自不能已矣.)

12) 『論語·學而篇』: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여기서 樂을 느끼는 이유는 이미 나와 뜻을 같이 하거나 같은 공부를 한 벗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전혀 생소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樂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일어났을 때 마음 안팎으로 나오는 편안하지 않은 거부감이나 앞서 말한 惡惡과 관련되어 있다. 『論語』에서는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라 하였는데 여기서 慍이 哀怒와 비슷한 감정으로서 상대방이 내가 가진 좋은 뜻이나 道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가슴 속에 쌓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陽人은 자신의 강함을 바탕으로 자기 의지를 밖으로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哀怒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陰人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아껴주는 것에 관심이 많으므로 喜樂의 감정이 발달하게 된다.

4) 性情의 相互 轉化

앞에서 喜와 怒는 외부로 잘 드러나는 감정이고 樂과 哀는 속에 감추어진 감정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內外表裏의 관계속에서 性情의 相互 轉化가 일어난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性情의 轉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

性이란 耳目鼻口의 好善 작용으로 외부세계의 이치를 받아들여려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면 情으로 촉발한다는 것이다. 情이란 이미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惡惡의 작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는 喜怒哀樂의 감정 자체는 사실 性보다는 情에 가깝다<sup>13)</sup>. 위에서 極이란

13) 예를 들어 太陽人의 경우에 “太陽人，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太陽之耳，察於天時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聽也. 怒情促急者，太

순수한 마음의 발동이 현실의 한계에 직면하여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는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가짐 속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性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侈樂無厭

즉, 哀의 감정이 極하여 가지런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분노가 밖으로 치고 나오고, 怒의 감정을 스스로 이기지 못할 때에는 좌절감을 느껴서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혼든다고 하였다. 또한 즐거움을 확실히 완성하려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외부의 應對에 대하여 안정되지 못한 반가움을 나타내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나친 친밀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때에는 사치와 몰욕에 빠져서 만족할 줄을 모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陽의 감정인 哀와 怒 사이에, 또한 陰의 감정인 喜와 樂 사이에 서로 轉化가 일어나지만 陰에서 陽으로 또는 陽에서 陰으로의 轉化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東醫壽世保元』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太陽少陽人 恒戒哀怒之過度而不可強做喜樂 虛動不及也  
若強做喜樂而 煩數之則 喜樂 不出於眞情而 哀怒益偏也  
太陰少陰人 恒戒喜樂之過度而不可強做哀怒 虛動不及也

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怒也.”라 하여 哀怒喜樂之性은 결국 耳目鼻口의 聽視嗅味 작용에 불과한 것이오 실제 哀怒喜樂의 감정은 바로 그대로 情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若強做哀怒而 煩數之則 哀怒 不出於眞情而 喜樂 益偏也

陽人인 太陽人과 少陽人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억지로 喜樂을 지어내면 이것은 眞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헛된 감정이기 때문에 實情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자신의 哀怒만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이다. 陰人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보이기 위하여 억지로 哀怒를 지어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喜樂만 도리어 올라가지 못하고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哀怒喜樂의 陰陽간 轉化는 쉽게 일어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陰陽人의 구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性情의 변화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順動이라 하였으며 반대로 逆動하는 경우를 病으로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 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 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 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 竝於下則 脾肺傷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順動을 하면 哀怒의 氣는 上升하고 喜樂의 氣는 下降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逆動하게 되면 暴發과 浪發을 하여 上下의 氣운을 상하게 한다. 哀怒은 暴發하고 喜樂은 浪發한다고 하였는데 暴은 陽의 감정인 哀怒로 인하여 갑자

기 흥분되어 순간적으로 강하게 氣운이 치솟는 것이고, 浪은 陰의 감정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빠져서 마음이 슬렁거리고 방탕해지는 것을 말한다<sup>14)</sup>. 사람이 흥분하거나 방탕하게 되는 이유는 모두 자신의 私의인 不滿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性보다는 情에 관련되어 있다. 나와 이해 관계가 있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흥분하게 되고, 혹은 남들이 나를 잘 돌봐주지 못한다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방탕해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남을 위하는 마음보다 강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暴과 浪 이외에 深의 병이 있는데 이것은 情보다는 性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太陽人의 경우에 哀性은 遠散하고 怒情은 促急하다고 하였는데 위의 문장에서 暴怒深哀를 경계하라고 하였으므로 哀怒喜樂의 深病은 性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性이란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보다는 大義를 우선하는 감정인데 여기에 대하여 오랫동안 너무 깊게 엮매었을 때에는 오히려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大義를 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 속에서 실행할 때 난관에 가로막히거나 지혜가 부족하여 제대로 펼치지 못할 때에는 깊은 마음의 병이 된다. 性의 深病은 그대로 병이 되면 表病으로 드러나며 性情의 상호 轉化에 의하여 情促急이 되면 裏病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表病보다는 裏病이 더욱 심한 병임을 알 수 있다.

#### 5) 체질별 性情의 변화

四象人 각각의 性情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太陽人의 경우에는 哀性이 遠散하며 怒情이 促急하다고 하였다. 哀는 사리분별을 통해 나타나는 냉정한 감정이며<sup>15)</sup> 性은 私의

14) 浪은 물결이 이는 것으로 暴처럼 갑작스런 흥분은 아니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外部의 事物에 쉽게 동요되는 것을 말한다.

관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 세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므로<sup>16)</sup>, 哀性이란 곧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 세계가 이치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며 또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悲痛해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遠散이란 의미는 天時 즉 하늘의 운행에 담겨져 있는 無形의 이치에 대하여 들으려 할 때<sup>18)</sup> 그 양상이 멀고 먼 궁극에까지 도달하려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怒는 서로 무시하고 억누르려는데 대한 감정이며<sup>19)</sup> 情은 자신과 私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怒情의 促急은 자신과 가까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할 때 나타난다<sup>20)</sup>. 이해 관계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냉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바로잡아 가는 반면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가까운 영역에 속해있는 대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怒情을 드러내는 것이다.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하며 哀情이 促急하다고 하였다. 怒性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

- 15) 앞에서 衰는 欺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어떠한 일이 감춰진채로 어그러지게 진행되지는 않는가에 대하여 냉철하게 살피는데서 출발하는 감정이다.
- 16) 性이란 耳目鼻口가 天機(天時, 世會, 人倫, 地方)에 대하여 듣고, 보고, 냄새맡고, 맛보는 것이므로 天地의 실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려 하는 순수한 마음이다.
- 17) 사람 관계에 있어서 “哀衆人之相欺也”라 하였으니 자신과 이해 관계가 없는 못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哀痛해하는 것이다.
- 18) 여기서 귀로 이치를 듣는다는 것은 상징적 표현으로 이치가 색이나 맛이나 냄새로 드러나지 않고 마치 소리처럼 형태없이 실행되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 19) 怒는 侮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侮란 길으로 드러내놓고 상대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 20) “怒別人之侮已也”라 하였으니 衆人和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 즉 자신과 私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이다.

고 반목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참지 못하여 화를 내는 것이며, 宏抱란 怒性의 감정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평등을 지향하여 모든 대상을 끌어 모아 하나의 질서 하에 통일시키려는 양상을 형용한 것이다<sup>21)</sup>. 哀情이 促急하게 되는 상황은 자신과 私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여서 일을 잘못하였을 경우에, 자기와 뜻을 같이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감정이 생겨서 거리감을 두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애 통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太陰人의 경우에는 喜性이 廣張하며 樂情이 促急하다고 하였다. 喜性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을 말한다. 이때에 사람들은 자신과 이미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의 생소한 사람까지 포함하며 이때의 도움도 맹목적인 도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樂情이 促急하는 것을 앞에서 侈樂無厭이라고 하였는데, 남과 만나는 기쁜 감정 속에 私慾이 개입되면 인간관계의 본질보다는 주고받는 物에 치우쳐서 侈가 나타나고<sup>22)</sup>, 공정하고 합당한 남의 도움보다는 친한 사람이 맹목적으로 보호해주면서 제공하는 物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sup>23)</sup>.

少陰人의 경우에는 樂性이 深確하며 喜情이 促急하다고 하였다. 樂性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아끼고 보호해주는데 관심이 많은 것이다. 즐거움이란 개방적인 흐름과는 달리 자신의 주관적인 친밀감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조금은 맹목적이고 고집스러운 면을

- 21) 宏抱란 넓게 감싸서 한군데로 모으려는 것으로 하나의 기준 하에 통일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 22) 侈란 자신의 本分보다 인위적으로 많게 보이려는 것으로 길으로 꾸며서 세력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 23) 앞에서 “樂別人之保己也”라 하였으니 이같이 他人의 물적 도움에 빠지는 것을 浪樂이라 하였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깊고 확고한 성질을 深確이라 표현한 것이다. 맹목적 보호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物的 도움인데 少陰人은 深確한 성질을 가지고서 物性에 대한 관찰이 뛰어나며 物을 잘 활용하여 남을 보호한다. 앞에서 少陰人은 樂極不成하면 喜好가 不定하다고 하였는데, 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강하나 그만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므로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喜情이 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관심과 도움에 대하여 그 내면의 실상을 살피지 못하고 동요하여 기쁜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浪喜라고 표현하였다.

이상 性情에 따른 체질간 비교를 종합해보면 陰人 대 陽人의 대비 즉, 哀怒와 喜樂의 나뉘미가 가장 크게 드러나고 다음으로 그 속에서 內外表裏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陰陽의 같은 속성 안에서는 서로 轉化가 일어나므로 겉으로 느끼기에는 유사하게 느낄 수 있다. 즉 太陽人과 少陽人, 太陰人과 少陰人은 서로 비슷한 감정의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되는 性情이 발현될 수는 있으나 스스로 돌이켜 관찰했을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性情이 陰陽체질의 근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 3. 臟大小에 따른 체질간

#### 비교(太陽-太陰, 少陽-少陰)

臟의 大小는 체질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된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四象人을 정의할 때 臟의 大小로써 규정하였다.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여기서는 太陽人과 太陰人, 少陽人과 少陰人이 대비되어 앞 장에서 말한 性情의 陰陽 대비와는 다를 수 있다. 臟의 大小에 의하여 우리 몸의 여러 조직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외부적으로는 體形의 각 부분적 발달 정도와 질병 발생시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의 관찰을 통하여 大小를 파악할 수 있다<sup>24)</sup>. 臟의 大小가 생기는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性能과 臟大

『東醫壽世保元』에서 哀怒喜樂之性은 곧 耳目鼻口の 聽視嗅味와 같다고 하였는데 聽視嗅味는 天機인 天時, 世會, 人倫, 地方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순수한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받아들일려고 하는 好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sup>25)</sup>.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체질별 耳目鼻口の 能不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而 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而 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而 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여기서 廣博의 의미가 바로 자기만을 위하는

24) “胃脘與 舌 耳 頭腦 皮毛 皆肺之黨也 ...胃與 兩乳 目 背脊 筋 皆脾之黨也 ...小腸與 膈 鼻 腰脊 肉 皆肝之黨也 ...大腸與 前陰 口 膀胱 骨 皆腎之黨也”라 하여 각 부분의 기능적 외형적 발달 정도를 관찰하여 臟大小를 알 수 있다.

25) 이에 반하여 肺脾肝腎은 법대로 지나가려는 惡惡의 마음을 바탕으로 人事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를 行하게 된다.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게 받아들이는 好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廣博하였을 때 인간은 公理의 세계인 天機와 소통할 수 있다. 太陽人과 太陰人은 서로 天時와 人倫을 파악하는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少陽人과 少陰人은 서로 世會와 地方을 파악하는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天時는 脫人間的 세계인 동시에 理的인 세계이며 人倫은 人間 세계인 동시에 맹목적 情으로 맺어진 세계이므로 天時와 人倫은 相極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世會는 人間的 세계이면서 이치로 맺어진 세계이며 地方은 脫人間的 세계이면서 氣的, 物的 세계이므로 서로 相極이 된다. 이와 같은 차이에 의하여 각 체질의 장점과 취약점이 잘 드러나게 된다. 耳目鼻口의 廣博 여부 즉 性의 不能에 의하여 臟의 大小가 만들어지는 것을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故 太陽之神 充足於頭腦而 歸肺者 大也  
 太陽之嗅 不能廣博於人倫故 太陽之血 不充足於腰脊而 歸肝者 小也

太陰之嗅 能廣博於人倫故 太陰之血 充足於腰脊而 歸肝者 大也  
 太陰之聽 不能廣博於天時故 太陰之神 不充足於頭腦而 歸肺者 小也

少陽之視 能廣博於世會故 少陽之氣 充足於背脊而 歸脾者 大也  
 少陽之味 不能廣博於地方故 少陽之精 不充足於膀胱而 歸腎者 小也

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故 少陰之精 充足於膀胱而 歸腎者 大也  
 少陰之視 不能廣博於世會故 少陰之氣 不充足於背脊而 歸脾者 小也

즉, 聽視嗅味の 廣博하면 神氣血精이 충족해지고 그것이 頭腦, 背脊, 腰脊, 膀胱 각각의 臟海, 膜海, 血海, 精海에 저장되었다가 肺脾肝腎에 영향을 주어 臟大가 생긴다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耳目鼻口 聽視嗅味の 廣博은 타고난 本性에 가까우므로 쉽게 변하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타고난 臟의 大小도 쉽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臟大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性能의 過度로 인하여 현실과 괴리되었을 때에는 深病이 나타날 수도 있다<sup>27)</sup>.

## 2) 臟小의 요인

위에서는 性의 不能에 의하여 臟小가 일어남을 설명하였는데 情促急의 과정을 거쳐서도 臟小가 생긴다. 情促急은 性情의 상호 轉化에 의하여 性의 能함에서 시작하므로 臟小의 또하나의 원인으로 性能의 장애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太陽人의 경우에 鼻의 嗅感이 不能하여 人倫에 廣博하지 못하므로 血不足으로 인하여 肝이 작아질 수 있으며, 또 한가지 과정으로 哀性이 너무 깊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가 怒情이 促急해지고 이 怒情促急이 다시 肝을 쳐서 肝小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이때에 怒情促急이 肝을 치는 이유는 性의 不能에 의하여 가장 취약한 臟이기 때문이다.

26) 예를 들어 太陽人의 肺大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는 “耳 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充滿於上焦 爲神而 注之頭腦爲臟 積累爲賦海... 肺 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賦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而 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라고 설명하였다.

27)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라 하여 哀性이 너무 깊어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심해질 때 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원래 怒情이 일어나는 곳은 中上焦의 脾이지만 怒情促急에 의하여 脾가 바로 손상을 받지 않고 원래 嗅가 廣博하지 못한 肝에서 병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情과 人事의 상관성 때문에 人事를 주로 行하는 脾는 병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견디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人事의 能不能 관계 중에서 논하고자 한다. 情促急에 의하여 臟이 손상받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頻起怒而頻伏怒則 腰脇 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 迫蕩不定則 肝 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則 胸腋 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 闊狹不定則 脾 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則 脊曲 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 屈伸不定則 腎 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則 背佳頁 暴揚而暴抑也 背佳頁者 肺之所住着處也 背佳頁 抑揚不定則 肺 其不傷乎

怒가 자주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면 腰脇 부위를 뺨박했다 풀어줬다 하므로 그 부위에 위치한 肝이 傷하게 되고, 喜가 잠깐씩 외부로 펼쳐졌다가 다시 속으로 들어가면 胸腋 부위를 넓혔다 좁혔다 하므로 그 부위에 위치한 心이 傷하게 되고, 홀연히 무심코 哀가 動했다가 그 치면 몸을 숙였다가 다시 펴게 되므로 脊曲 부위에 위치한 腎이 傷하게 되고, 즐거움의 대상을 얻었다 잃는 것이 누차 계속 쌓이면 흥분이 등 위까지 뒹다 가라앉으니 그곳에 위치한 肺가 傷한다고 하였다. 臟의 大小를 종합해 보면 모두 耳目鼻口 本性的 能不能에 뿌리를 두고 있다. 本性的 能不能은 타고난 先天性에 기인하므로 쉽게 바뀔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天機의 理致에 대하여 태어날 때부터 어느 만큼 밝게 타고났는가의 문제이므로 그에 대한 覺醒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臟의 大小는 각 체질에 있어서 쉽게 바뀔 수 없는 확고한 바탕

이라 할 수 있다. 臟大小가 체질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性情의 관계는 서로 轉化가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에 臟의 大小는 서로 轉化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體形과 病症들도 각 체질간에 뚜렷 차이를 두게 된다.

### 3) 性不能의 극복과 絶世의 行其知

타고난 性不能의 단점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性을 발휘하지 않고 살 수도 없다. 이러한 단점을 감추려 하는 것이 바로 邪心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頷臆臍腹에서 知를 行하는 과정 중에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이 나오고 그 속에 邪心인 驕心, 矜心, 伐心, 夸心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邪心을 극복하면 絶世의 才能이 나온다고 하였다<sup>28)</sup>. 知를 行한다는 것은 현실의 주어진 특수 상황 속에서 그에 맞추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人事를 行할 때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性의 不能은 곧 人事의 不能으로 이어지게 된다<sup>29)</sup>. 이러한 人事의 不能을 스스로 극복해내면 絶世의 마음씀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太陰之頷 宜戒驕心 太陰之頷 若無驕心 絶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絶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絶世之行檢 必在此也

28)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李濟馬 선생은 “以孔子之聖, 三千之徒受教, 而惟顏子, 三月不違仁, 其餘, 日月至焉, 而心悅誠服者, 只有七十二人則, 人之邪心, 果無雙也.”라 하여 萬人の 邪心을 한탄하였다.

29) 太陽人の 경우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라 하였으므로 鼻가 人倫에 廣博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黨與에 雅立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여기서 絶世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개인적 능력을 말하는데 자신의 天性과 人事의 不能을 스스로 극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체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人の 경우 원래 人倫에 어두워서 친한 사람들과의 黨與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을 眞性を 살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억지로 엄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伐心이다<sup>30)</sup>. 이 伐心이 겸손해져서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엄격해질 때 뛰어난 行檢이 나오게 된다.

太陰人の 경우 원래 天時에 어둡기 때문에 이치를 바탕으로 해나가야 하는 事務에 능숙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哀性の 냉정함이 필요한데 哀性を 키우지는 못하고 눈앞에 직면한 이해타산에만 밝으면<sup>31)</sup> 여기서 잘난체하는 驕心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驕心이 줄어들고 진정한 이치에 밝아지면 오히려 뛰어난 상황 대처 능력인 籌策이 나온다는 것이다.

少陽人の 경우 地方에 어두워 자신의 物的 토대가 되는 居處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深確하게 事物의 본질을 파고들어 이해하는 樂性이 필요한데 그것을 키우기보다는 단점을 감추고 크게 보이려고만 하는 夸心이 생길 우려가 있다<sup>32)</sup>. 이러한 夸心이 內實을 갖

추었을 때에는 오히려 남을 헤아리고 돌봐주려는 큰 度量이 생기게 된다.

少陰人の 경우 世會에 어두워서 交遇를 행하는 중에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남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위축되지 않고 펼쳐서 오히려 남을 끌고 갈 수 있는 怒性이 필요한데 그것을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일부 장점을 남에게 자랑하려고만 하는 矜心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sup>33)</sup>. 이러한 矜心이 좋게 발전하여 안으로 자신의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재능을 키워나가면 絶世의 經綸이 나온다는 것이다.

#### 4. 人事의 能不能에 따른 체질간 비교(太陽-少陰, 少陽-太陰)

##### 1) 人事와 情의 관계

人事란 天機와 달리 ‘나’라는 주체가 개입되어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구별해놓은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事務, 交遇, 黨與, 居處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人事를 행하는 나의 주체성 속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싫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惡惡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肺脾肝腎 四臟이 人事를 담당하고 있는데<sup>34)</sup> 바로 肺脾肝腎

30) 脾가 人事인 交遇를 행할 때 勇統하는 성질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31) 太陰人の 腎이 樂情에 의하여 人事를 행할 때에 恒定於居處를 잘하게 되는데 일처리를 할 때에도 이러한 자신의 物的 居處를 확보하는데 판단력을 발휘한다.

32) 少陽人の 肺가 人事를 행할 때 事務에 敏達하여 일처리를 빠르고 원활하게 하는데, 깊이 헤아려 정해야 하는 居處에 대해서는 능할 수가 없다. 敏達의 성질을 가지고 거처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마음이 바로 夸心이다.

33) 少陰人の 肝이 黨與를 행할 때 雅立을 잘하므로, 자신과 친한 사람들에 대하여 단지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대하려고만 한다. 이러한 마음이 이어져서 다른 사람과 사리분별을 따져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서 우위를 점하려는 矜心이 나타나게 된다.

34)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라 하여 肺脾肝腎이 人事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達은 일이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며, 合은 사람간의 새로운 만남을 잘 성사시키는 것이며, 立은 가까운 사람과의 친분관계를 두텁게 형성하는 것이며, 定은 자신의 居處를 안정되게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의 惡惡하는 성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35)</sup>. 또한 각각의 체질상으로는 情을 발휘하는 臟에서 人事를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 太陽人은 脾에서 怒情이 促急하므로 脾가 太陽人의 주된 人事인 交遇를 담당함을 알 수 있다. 性情을 비교하였을 때 情은 자신을 위하여 하는 私적인 면이 강하므로 역시 惡惡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반면에 人事를 제대로 行하지 못하는 것은 本性이 가장 취약한 臟에서 일어난다. 앞에서 性의 不能에 의하여 臟小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臟小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人事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陽之鼻 能廣博於人倫而 太陽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而 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而 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 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35)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惡聲, 逆肺也. 惡色, 逆脾也. 惡臭, 逆肝也. 惡味, 逆腎也.”라 하였다.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太陽人의 경우에 性의 廣博은 耳에서 不能廣博은 鼻에서 이루어져 太陰人과 상대를 이루지만, 人事의 能不能에 있어서는 脾는 能하고 肝은 不能하여 결과적으로 少陰人과 상대를 이루게 된다. 즉, 性의 能不能에 의한 臟의 大小가 아니라 외부로 일을 행하는 人事의 측면에 있어서는 太陽人과 少陰人, 太陰人과 少陽人이 짝을 이루어 대비되는 것이다.

## 2) 人事의 不能

耳目鼻口의 聽視嗅味가 廣博하지 못할 경우 臟小가 되고 臟小에 의하여 해당 臟의 人事가 能하지 못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각 체질의 발달된 性情 중 나타나는 情이 원래 能하지 못한 人事에서 그대로 발휘되다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太陽之怒 能勇統於交遇故 交遇 不侮也 太陽之喜 不能雅立於黨與故 黨與 侮也  
 是故 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而 必在於黨與也  
 少陰之喜 能雅立於黨與故 黨與 助也 少陰之怒 不能勇統於交遇故 交遇 不助也  
 是故 少陰之浪喜 不在於黨與而 必在於交遇也  
 少陽之哀 能敏達於事務故 事務 不欺也 少陽之樂 不能恒定於居處故 居處 欺也  
 是故 少陽之暴哀 不在於事務而 必在於居處也  
 太陰之樂 能恒定於居處故 居處 保也 太陰之哀 不能敏達於事務故 事務 不保也  
 是故 太陰之浪樂 不在於居處而 必在於事務也

太陽人의 怒情은 中上焦에서 발현되어 脾가 交遇到 勇統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勇統이란 怒의 宏抱한 성질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통솔하여 세상을 이치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것인데 자신과 절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交遇의

관계에서는 제대로 발휘된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 등 人倫으로 맺은 사람들에게 勇統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 黨與를 행할 때에는 雅立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만 끌고가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반발을 일으키고 이것이 怒情을 더욱 促動시켜 병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에 少陰人の 경우는 中下焦에서 喜情이 발현되어 肝이 黨與에 대하여 雅立을 잘하는데 자신이 능하지 못한 交遇의 人事에서 雅立만을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남의 인정과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交遇란 단순히 친분으로 맺어진 인간 관계가 아니고 公의인 일이 결부되어 있는데 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雅立만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때에 喜好가 안정되지 못하여 외부로부터 올바른 지 못한 도움을 주더라도 是非를 가리지 못하고 기쁜 마음이 속에서 요동하게 된다.

少陽人の 哀情은 上焦에서 발현되어 肺가 事務에 敏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敏達이란 哀의 遠散한 성질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놓여진 일을 합리적으로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事務를 처리할 때는 敏達해야 하나 居處를 신중히 정해야 할 때에 敏達하게 되면 일이 어긋나거나 남들이 자신의 빈틈을 이용하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悲哀의 감정이 격해져서 마음을 요동시켜 병을 일으킨다.

반면에 太陰人은 下焦에서 樂情이 발현되어 腎이 居處를 恒定하는데 능하다. 즉, 자신의 공간적 토대를 단단히 定하는데는 능한데 事務를 처리할 때에는 이러한 토대보다는 이치에 밝아야 하므로 부족함이 드러나게 된다. 실제 事務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居處도 안정시킬 수 없게 되므로 더욱 居處를 확보하려는 마음만 급해진다. 이때에 事務의 본질보다는 事務를 통하여 外部로부터의 획득하

게 되는 物的 유혹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人事의 無能이 다시 肺脾肝腎을 傷하여 臟小를 일으키게 된다.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之交遇 可以怒治之而 黨與 不可以怒治之 若遷怒於黨與則 無益於黨與而 肝傷也  
 少陰之黨與 可以喜治之而 交遇 不可以喜治之 若遷喜於交遇則 無益於交遇而 脾傷也  
 少陽之事務 可以哀治之而 居處 不可以哀治之 若遷哀於居處則 無益於居處而 腎傷也  
 太陰之居處 可以樂治之而 事務 不可以樂治之 若遷樂於事務則 無益於事務而 肺傷也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而 輕於黨與故 每爲親熟黨與人所陷而 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少陰人 謹於黨與故 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而 輕於交遇故 每爲生疎交遇人所誣而 偏喜傷臟 以其慮患之心 不周故也  
 少陽人 重於事務故 恒有出外興事務之哀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而 不謹於居處故 每爲內倣居處人所陷而 偏哀傷臟 以其重外而 輕內故也  
 太陰人 重於居處故 恒有內倣居處之樂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而 不謹於事務故 每爲出外興事務人所誣而 偏樂傷臟 以其重內而 輕外故也

또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人事의 能함은 올바른 情의 발현 즉 秉彜之敬心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人事의 不能은 情의 치우침에서 나와 臟을 傷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暴怒가 나타나는 이유를 擇交之心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黨與를 행할 때 친숙한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려하거나 자신에 맞는 사람만 사귀려는 것이다. 少陰人에게 浪喜가 나타나는 것을 慮患之心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생소한 사람을 만나서 交遇를 할 때에 사려 깊게 상대의 마음을 따져 보지 못하고 기쁜 감정에 휩쓸려 버린다는 것이다.

少陽人의 경우에는 事務만을 중시하고 居處는 등한시하니 밖을 重視하고 안을 輕視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안을 輕視하므로 자신의 居處 주변이 어그러지고 여기에 暴哀가 發하여 臟을 傷하게 된다. 太陰人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事務에 능하지 못하므로 밖을 포기하게 되고 안으로 居處를 확보하는데에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居處에는 능하지만 事務를 행할 때 남들의 속임을 받게 되고 物欲에 현혹되어 樂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 3) 외부 양태의 대비

위에서 말한 勇統과 雅立, 敏達과 恒定 등은 人事를 行할 때에 걸음으로 드러나는 양태들이다. 인사는 실제 현실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능하고 능하지 못함이 외부의 양태로서 드러난다. 勇統은 交遇를 할 때 脾氣를 바탕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이고 雅立은 肝이 충만한 血과 喜의 감정으로 써서 黨與를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敏達은 肺가 神을 바탕으로 哀를 펼쳐서 事務를 원활히 행하는 모습이고 恒定은 腎이 精을 바탕으로 深確한 樂의 감정을 써서 居處를 확고히 하는 모습이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性情이 외부로 드러나는 외부 양태를 각각 性氣, 精氣라 하는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우선 性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學而 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 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 不欲出<sup>36)</sup>

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材而不壯 不能進也  
少陽之學 量可而學也 自反其力而不固 不能學也  
太陰之靜 量可而靜也 自反其知而不周 不能靜也  
少陰之處 量可而處也 自反其謀而不弘 不能處也

哀怒喜樂의 性情은 상호 轉化 관계에 의하여 太陽-少陽, 太陰-少陰의 짝을 이루지만 性의 외부의 양태로 드러날 때에는 本性의 고유한 성질에 의하여 太陽-少陰, 少陽-太陰의 짝으로 변하게 된다. 즉, 위에서 退와 出이 대비되고 措와 動이 대비된다. 太陽人의 哀性은 遠散하므로 멀리 나아가려고만 하고, 반대로 少陰人의 樂性은 深確하여 깊고 단단한 居處에 안주하려 한다. 少陽人의 怒性은 宏抱하여 남들을 감싸서 하나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항상 움직여 일을 만들며 반대로, 太陰人의 喜性은 廣張하여 남에 대한 관계의 폭을 넓힌 후에 조금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붙잡고서 놓지 않는다.

太陽人의 進은 스스로 돌이켜서 재주의 뒷받침이 없으면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그칠 것이며, 少陰人의 退는 스스로 돌이켜서 피를 크게 내지 못한다면 사면초가의 형세가 되어 고립될 것이다. 또한 少陽人의 動은 남을 포섭할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일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太陰人의 靜은 자신에게 부족한 앎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무도 관계를 맺기 위해 모이지 않을 것이다.

情氣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 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 不欲爲雄

36) 性의 성질에서부터 출발하므로 문장 순서를 性情의 관계에 의하여 太陽-少陽, 太陰-少陰 순으로 놓았다.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 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 不欲外勝<sup>37)</sup>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 放縱  
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 偷逸  
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 偏私  
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 物欲  
之心 必過也

情氣란 특히 人事를 行할 때에 남들에게 곁  
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앞서의 性氣는 이에  
비하여 비교적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太陽人의 雄은 勇統於交遇을 말하  
며 少陰人의 雌는 雅立於黨與을 말한다. 少陽  
人의 外勝은 敏達於事務를 말하며 太陰人의 內  
守는 恒定於居處를 말한다.

太陽人이 여성스러움이 없으면 放縱으로 흐  
를 것이고 少陰人이 남성스러움이 없으면 나약  
하게 남에게 의존하면서 게을러질 것이다. 少  
陽人이 외부의 일에 있어서 이기려고만 한다면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 이기적이 될 것이고  
太陰人이 안으로 居處만을 단단히 지키려고만  
한다면 物欲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  
다. 이와 같이 雌雄과 內外 간에 자신에게 부  
족한 것을 서로 보완을 해야 하지만 원래 상대  
적으로 能하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보완이 어렵  
게 나타난다.

4) 情氣의 보완과 大人의 行其行

앞에서 情氣의 보완이 쉽지 않음을 말하였는  
데 그 이유는 人事를 몸소 行할 때 자신의 부  
족한 면을 선뜻 보완하지 못하는 怠心이 작용

37) 情으로부터 행해지는 人事와 관련이 있으므로  
문장의 순서를 太陽-少陰, 少陽-太陰의 순으로  
놓았다.

하기 때문이다. 怠心은 근본적으로 게으른 몸  
에서 나온다<sup>38)</sup>.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  
見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  
儀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  
幹 必在此也  
太陽之臀 宜戒竊心 太陽之臀 若無竊心 大人之方  
略 必在此也

여기서 大人이라 한 것은 小人의 반대로 남  
을 위할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sup>39)</sup>. 즉 大人은  
남들을 위해서 몸소 행하여 德을 베푸는 사람  
이다. 人事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려할 때 한편  
으로 怠心이 작용하여 가로막는데 이러한 怠心  
을 극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大  
人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太陽人의 경우 黨與에 雅立하지 못하므로 현  
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  
게 되는데 이 방안은 太陽人의 머리에 있는 神  
에서 나온 것이므로 어느 정도 효과를 얻게 된  
다. 이 현실적인 방안들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현실의 이익을 자기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마음  
이 바로 竊心이다. 雄에서 雌로 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잘못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이 竊心이 없어야만 진정으로 남들을 위하  
는 大人의 方略이 나오게 된다<sup>40)</sup>.

少陰人의 경우 交遇에 勇統하지 못하므로 이

38)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李濟馬 선생은 “以  
文王之德百年而後崩, 未洽於天下, 武王周公繼之然  
後大行, 而管叔蔡叔猶以至親作亂則人之怠行, 果無  
雙也.”라고 萬人의 怠心을 한탄하였다.

39) 邪心을 극복한 絶世의 개인적 능력과는 다르다.

40) 方略이란 현실의 복잡한 난관을 그때그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간략한 방안으로서 權道에 속  
한다.

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밖으로 자신의 힘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힘의 부족으로 인하여 머리의 피를 동원하게 된다<sup>41)</sup>. 그 피의 뛰어난 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기회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奪心<sup>42)</sup>이다. 이 奪心を 없애고 남을 위하는 德에 근본하여 智를 行하게 되면 大人의 識見이 생기게 된다<sup>43)</sup>.

少陽인 경우에는 居處를 定하는데 치밀하지 못하므로 자신이 능한 事務를 행하는 능력을 가까운 주변에 사용하여 材幹을 부리게 된다. 밖으로 外勝만 할 수는 없으므로 內守를 위하다가 材幹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靜한 居處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材幹만 믿고 등한시하는 것이 懶心이다. 이때에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실행에 옮긴다면 大人의 材幹이 나오게 된다.

太陰인 경우에는 이치에 밝지 못하여 事務를 행하는데 민첩하지 못한다. 반대급부로 밖으로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외면적 修飾에 힘쓰게 된다. 곧 內守에 중심을 두다가 外勝을 하려다 나오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侈心이니 이 侈心이 없으면 萬인 마음속을 복종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大人의 威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雌雄內外 간에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怠心이 나오거나 大人의 行이 나오는 것이다. 雌雄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며 內外는 겉으로 볼 때 행동이 적극적이냐 아니면 물러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雌와 雄, 內와 外는 서로 상반되지만 한편으로 같은 차원에서 서로 보완된다는 점에서 유사성도 가지고 있다. 太陽인과 少陰인은 겉으로 이

기고 지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無形의 권력을 잡으려 하거나(雌) 그 권력에 복종하는 것(雌)을 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太陽인과 少陰인은 비록 성질이 상반되나 서로간에 부족한 것을 바라는 親함을 느끼게 된다. 少陽인과 太陰인은 밖으로 나아가 이기거나(外勝) 물러나 굳게 지키는데(內守)에 치중한다. 그러므로 少陽인과 太陰인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 역시 서로간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데서 親함을 느끼게 된다.

### III. 결 론

1. 哀怒喜樂 性情의 상호 轉化 관계로 보았을 때 太陽인과 少陽인, 太陰인과 少陰인이 대비되는데, 이것은 哀怒의 감정을 가진 陽인과 喜樂의 감정을 가진 陰인을 크게 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哀와 怒, 喜와 樂은 서로 轉化가 이루어지므로 太陽인과 少陽인 및 太陰인과 少陰인 사이의 性情은 현실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반면에 陰인과 陽인 사이의 性情의 轉化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타고난 性과 情의 발현에 의하여 臟의 大小가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太陽인과 太陰인, 少陽인과 少陰인이 대비된다. 즉, 性이 제대로 발현되었을 때 耳目鼻口의 好善 작용에 의하여 臟大가 이루어지며 情의 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情促急이 일어났을 때 人事를 행하는 惡惡의 작용이 오히려 臟에 害를 주어 臟小가 이루어진다. 臟의 大小는 근본적으로 타고난 本性의 能不能에 근본하므로 선천적으로 규정되어 가장 바뀌기 어려운 특성이 된다.

41) 雌에서 雄으로 태도를 바꾸어 권력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피를 내는 것이다.

42) 奪心은 물건을 빼앗기보다는 남의 기회나 지위를 빼앗는 권력욕에 가까운 마음이다.

43) 識見이란 복잡한 상황을 보고 파악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거나 나아가갈 방향을 판정하는 능력이다.

3. 性情이 발현되어 현실 속에서 人事를 行할 때 人事의 能不能에 의하여 太陽人과 少陰人, 少陽人과 太陰人이 대비된다. 이러한 人事의 能不能이 외부 양태로 표현된 것이 太陽人의 雄과 少陰人의 雌, 少陽人의 外勝과 太陰人의 內守인데 이들은 서로 유사성과 대립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雌雄과 內外는 서로 상반된 양태이지만 雌雄은 내면의 理的 세계에 함께 속하고 內外는 밖으로 드러난 氣的 세계에 함께 속하여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같은 차원에 속하면서 서로간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자 하므로 太陽人과 少陰人, 少陽人과 太陰人은 서로 동경하는 親함을 가지게 된다.
  4. 太陽人과 太陰人, 少陽人과 少陰人의 관계에서, 사람의 타고난 本性의 취약함 때문에 知를 行하려할 때 자기만을 내세우는 驕心, 矜心, 伐心, 夸心の 邪心이 개입되는데 스스로 돌이켜 이러한 邪心을 극복하고 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絶世의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을 갖게 된다. 또한 太陽人과 少陰人, 少陽人과 太陰人의 관계에서 人事를 행할 때 能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태인 雌雄內外 情氣의 취약점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남을 위한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奪心, 侈心, 懶心, 竊心の 怠心이 개입되어 있다. 남을 위한 덕을 베풀어 行其行을 하여 이러한 怠心을 극복하였을 때에는 萬人을 爲할 수 있는 大人의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을 보여주게 된다.
2. 孟子集註: 서울, 명문당, 1983
  3. 論語集註: 서울, 명문당, 1999
  3. 中庸集註: 서울, 명문당, 1986
  4. 王冰: 補注黃帝內經. 서울, 일중사, 1993

#### IV. 참고문헌

1. 李濟馬: 동의수세보원. 서울, 행림서원, 1986